

# 광주 도심 한밤중 여고생 피살...20대 피의자 검거

## 귀가 중 흥기 피습...구조 나선 남학생도 경사 피해 경찰 조사서 "자살하려다 범행"...교육당국 긴급 대응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흥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목격하고 구조에 나섰던 또 다른 고등학생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20대 피의자를 검거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광산경찰은 5일 살인 등 혐의로 A씨(24)를 주검지 앞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께 광산구 월계동 점단지구 한 인도에서 고등학생 B양(17)을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다가온 다른 학교 고등학생 C군(17)에게도 흥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범행이 발생한 신원IC 주변 양복 6차선 대로변.

현재 무직인 A씨는 다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자살을 결심한 배경, 범행 후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한 이유, C군을 뒤흔은 이유 등은 확인 중이다.

범행 도구로 쓰인 흥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흥기 위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약물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추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신 질환 치료 전례 등도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 발생 장소는 양복 6차선 대로변 인도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고 대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지만 상가가 없어 자정 전후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다. 신원IC(나들목) 주변 도심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대로변인 만큼, 큰 가로등이 설치되어 설치된 구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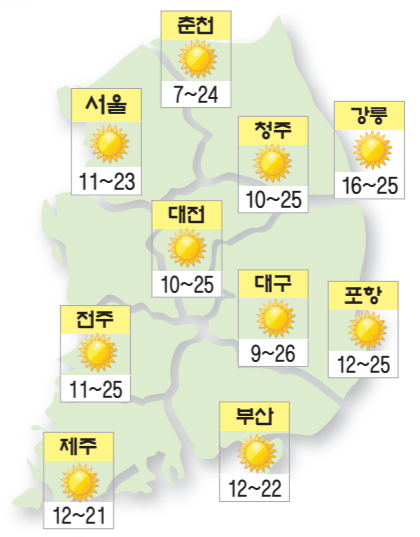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혈흔이 남아 있었다. 인도와 접한 화단 주변에는 흙으로 일부 덮인 흔적이 있었지만, 경계석에는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케 했다.

평소 현장을 지나간다는 한 시민은 "조용한 동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어린 학생이 길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5:37	달림	19:22
맑음	22:57	달림	07:30



광주	☀️	9~25
목포	☀️	11~23
여수	☀️	10~21
순천	☀️	9~23
구례	☀️	7~25
광주	☀️	10~23
신도	☀️	10~22
흑산도	☀️	13~19
진남	☀️	8~22
진도	☀️	12~20

목포	밀물 (고)	04:48 / 16:33
	썰물 (저)	10:02 / 21:48
여수	밀물 (고)	11:14 / 23:54
	썰물 (저)	05:29 / 17:10

## 광산구, 영산강 불법 점용 시설 강제 철거

### 건축물 1동 행정대집행... 하천 환경 정비도

광주 광산구가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해 온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산월동 443-4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에 대해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해당 건축물이 하천 환경과 시민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자 '하천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공고 절차를 거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현장에는 굴삭기 등 철거 장비와 전문 인력이 투입돼 건축물 해체와 함께 건설 폐기물 처리까지 이뤄졌다. 건축물 내부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최근 광주 서구 동성동 이음주거보호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교실에서 서구보건소 건강 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이 올바른 잇몸기 등 구강 건강 상담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오월 평화·연대 가치 체험 문화행사 열린다

### 5·18기념재단, 9~10일 5·18역사공원에서 '메이데이' 진행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체험하는 문화공연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대표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목공예 체험인 '피스로그'다. 나무 조각을 조립하고 채색해 데이지꽃을 만들고, 이를 하나씩 모아 하나의 '평화 나무'를 완성하는 협력형 창작 프로그램이다.

개인의 작은 참여가 모여 공동의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오월 이야기 퍼즐, 메시지 작성, 바다유리 체험, 오월 컬러링, 페이스

페인팅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공연도 마련됐다. 9일에는 싱어송라이터와 퓨전 국악 밴드 '올라'의 감성 공연이, 10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타이거'의 버블쇼와 아프리카 타악 그룹 '아냐'의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피스로그' 목공 체험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또는 행사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헤어진 연인 흥기 협박...20대 女 일당 체포

전 남자친구를 집으로 유인한 뒤 지인들과 함께 흥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 4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흥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현금 25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전 여자친구 C씨가 "집에 남겨둔 짐을 가져가려"고 연락해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현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씨의 현 남자친구 A씨와 지인들은 B씨가 도착하자 흥기를 들이대며 "빌린 돈 9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B씨를 수차례 폭행했고, 겁에 질린 B씨는 결국 254만원 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최근 광산구 월곡동에서 긴급체포했으며,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부실한 안내표지판, 시민불편 키운다

### 광주 도심 곳곳 훼손·오표기 표지판...접근성 문제도 지자체 뒤늦은 정비계획...시민들 "기본부터 챙겨야"

광주지역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과 전광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시민 불편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 글자가 벗겨져 식별이 어렵거나 이미 사라진 업체·시설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교차로 등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은 총 23개소로, 서구 14개소, 남구 6개소, 북구 3개소다.

하지만 해당 표지판은 현재 위치를 알리고 주요 시설·관광지로의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됐지만, 상수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하루 수천명이 오가는 서구 양동시장 일대의 도로명주소와 주요 시설·관광지 등이 담긴 도로명주소 표지판은 글자가 심하게 벗겨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게 정도로 훼손된 상태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쌍촌

역 사거리 인근 표지판에는 이미 폐업한 업체명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안내판 앞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돼 접근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안내시설이 오히려 길찾기를 방해할 정도였다.

행정구역 변경과 시설 폐쇄가 반영되지 않은 '오표기' 문제도 심각했다.

동구 계림동 898 일원에 설치된 '동구 계림1동 주민센터 안내' 표지판에는 2011년 10월 1일 구간경계조정으로 편입된 북구 중흥1동이 반영돼 있었다. 더욱이 2021년 4월 문을 닫은 이마트 동광주점과 지난해 12월 7일 문을 닫은 홈플러스 광주계림점 관련 위치도 표기돼 있고,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 도로명주소와 주요 시설·관광지 등이 담긴 도로명주소 표지판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광주 동구 '전자의 거리'에 설치된 LED 전광판이 고장 나 화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근 '전자의 거리' LED 전광판(가로 3m·세로 2.5m)은 화면 일부가 깨진 채 운영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동구가 2012년 11월 금남전자랜드 앞에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관리·운영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기본적인 공공시설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 김모씨(30)는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채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 이미지가 지체되고 있다. 전광판은 제 기능을 못하면 꺼두는 게 상식인데 계속 켜두는 건 현장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잇따르자 행정당국은 뒤늦게 정비 계획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건물번호판 등 다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일부 표지판 점검이 미흡했다"며 "현장 확인 후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동구 역시 "전광판과 안내표지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